

신기능이 저하된 무증상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항결핵제 복용으로 발현한 급성 통풍성 관절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문성진, 김영옥, 김영수, 윤선애, 신석준, 이승현, 장윤식, 방병기

결핵 환자에서 pyrazinamide를 포함한 항결핵제 투여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중 요산 치를 증가시키며 또한 관절통 등의 임상증세를 유발하나 급성 통풍성 관절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자들은 최근 신기능이 저하된 무증상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항결핵제 복용 후 발현된 급성 통풍성 관절염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76세 여자 환자가 9주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외래에서 항결핵제 치료를 받아오다 2일간의 통증을 동반한 양측 제1중족지절 관절 종창이 발생해 입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8년 전부터 무증상 고요산혈증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증(혈청 크레아티닌 치; 1.5-2.0 mg/dL)이 있었다. 내원 9주전에 폐결핵으로 pyrazinamide를 포함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투여 2주 후에 혈중 요산치가 19.2 mg/dL로 증가되어 allopurinol 200mg을 추가하였으며 항결핵제 투여 8주 후 pyrazinamide와 allopurinol 투여를 중단하였다. 내원시 양측 제1 중족지절 관절에 압통, 종창, 발적, 열감이 있었고 족부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의 연부조직 부종소견이 관찰되었다. 혈청 크레아티닌과 혈청 요산 치는 각각 2.0 mg/dL, 9.8 mg/dL였다. 관절액에 대한 형광현미경 검사에서 요산 나트륨 결정이 관찰되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을 확진하였다. 환자는 스테로이드와 colchicine 을 투여한 후 고열이 소실되고 관절통증과 종창이 호전되었다.